

<2018년 3월 25일 주일말씀>

내게 배워라. 쉽게 하리라

본 문 요한계시록 22장 13절

『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』

요한계시록 18장 6절

『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

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』

로마서 2장 9-10절

『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

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

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

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』

1. <육>끼리 가르치고 배우면 ‘육의 차원’에 해당되게 배우고, <주>께 배우면 ‘주의 차원’에 해당되는 것을 배우게 된다. 고로 <배움>과 <차원>대로 행하게 되고 변화된다.
2. 그동안 <생각>은 ‘주’께 두었으나, <실제로 행할 때>는 ‘자기 생각’이나 ‘자기가 중심한 사람의 가르침’대로 하였기에 주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.
3. <주의 말씀>을 확실히 듣고 주와 함께 실행해야 100% 주의 생

각대로 한 것이 된다.

4. <주의 말씀>을 확실히 알고 행하며, <주의 몸>이 되어 행하여라. 그러지 않으면 ‘자기 생각’이나 ‘자기를 가르친 자의 몸’이 되어 행할 뿐이다.
5. <주가 하는 말씀>을 듣고, <그 의미>를 확실히 깨닫고 생각하고 행해야 된다.
6. 10년, 100년을 행한다 해도 <말씀의 근본 뜻>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행할 수 없다.
7. <자기>도, <자기와 함께 하는 자>도 온전히 알아야 된다.
8. 낙심하지 말고 <선>을 행하고, <주의 말씀>을 좇아 행하여라. 그러면 후회가 없다.
9. 때가 되면, <주의 말씀>을 이루게 된다.
10. <그 날에 예비된 하늘의 면류관>을 흠 없이 쓰기 위해 매일 <주의 말씀>을 따라 주와 함께 행해야 된다.
11. 완전히 행하며 예비해 놓고, ‘그 날’을 기다려야 된다.
12. 어떤 자는 기다리기만 하고 예비하지 않으니, <영광의 날>을 맞았어도 보람 없이 맞았다.

13. <주를 실체로 맞는 것>이 ‘얼마나 중하고 귀한 일’ 인지, 하늘이 높은 것같이 차원 높이 깨닫고 예비하고 맞아야 된다.
14. <예비하지 않고 주를 맞은 자들>은 불쌍하고 불행한 자들이 되었다.
15. 아직도 기다리기만 하고 있느냐.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, 예비하고 자기를 만들어라.
16. <생명의 말씀>을 주었으니, <말씀>이 곧 ‘생명’ 이니라.
17. <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>는 ‘생명권’ 에서 무너진다.
18. <생명의 말씀>을 듣고, 깨닫고, 분별하고, 즉시 행하여라. <명철한 지혜>이니라.
19. 항상 가르쳐라. 그리고 항상 배워라. 그리고 행하여라. 그리고 얻고, 쓰고, 누려라. <주와 같이 하는 자>는 ‘주’ 와 같이 먹고 즐기라.
20. <부활의 몸>은 ‘육’ 과 ‘신령한 영’ 이다.
21. <산 자의 기쁨>이 너무나 크다. <지금>이 ‘그때’ 다.

22. <형통한 날의 사람>은 기뻐하고, <곤고한 날의 사람>은 생각하여라. 때가 급하다.
23. <일어나 빛을 발할 때>다. <영광의 빛의 때>다. 주와 같이 일어나 빛을 발하여라.
24. <지혜가 없는 자>는 <주의 마음>을 거스르고 <주의 전>에 해가 되게 한다. 이는 곧, <주>를 믿고 살았다 하나, 주를 귀히 여기지 않은 연고다.
25. 사람은 ‘일의 낙’ 을 누리며 산다.
26. <일>이 곧 ‘낙’ 이다. <사명>이 곧 ‘자기 면류관’ 이다.
27. <일>은 그냥 할 수 없다. 매일 배워야 알고, 알아야 기뻐하며 실천하게 된다.
28. <하나님의 자연의 전>을 보니, 주의 수종(隨從)들이 일은 하지만 주와 하지 않으니 오히려 해가 되는 일이 있다. <주>가 ‘머리’ 임을 절대 깨닫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.
29.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, 주께 배우고 주와 함께 행하여라. <주>가 너희의 머리이니라.
30. 잊으면 죽는다.

31. <일>이 ‘낙’ 인데, 왜 <일>이 ‘낙’ 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‘해’ 가 될까? <전에 주께서 말한 것>을 잊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서 행하지 못하고, 그로 인해 <현재의 일>이 막혀 버린 것이다.
32. <주가 한 말씀>을 잊으니 <자기 삶>도 잃고, <얻을 것>도 잃고, <이상세계>까지 잃게 된다.
33. <주>께 온전함을 배워라. 확실하게 배워라. <확실히 아는 자>가 ‘신’ 이 된다.
34. <부활되어 산 자>는 매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변화되어 <더 좋은 차원>에 살게 된다. 그러나 ‘차원을 높이지 않은 자’ 는 알 수가 없다.
35. 부활되어 살았으니, 먼저는 자기가 행함으로 차원을 높이고, 그리고 생명들도 가르쳐서 변화시켜 주어라.
36. <온전한 것>이 아니면 무너지거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어, 결국에는 ‘부활되지 못한 자들’ 과 같은 처지가 된다.
37. <초>와 <분>을 다투며 뛰고 달려라.
38. <주의 마음>을 줄이게 하지 말아라. <주>가 걱정하지 않게 하여라. 무엇이 주의 마음을 줄이게 하겠느냐.주께 배우지 않고 주와 함께 하지 않으니 그 일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고, 결

국 ‘주의 뜻’ 을 거스르게 되었느니라.

39. 주 앞에 온전히 행하여라. 그리하면 주도 같이 일체 되어 행하느니라.

40. 어디에서든지 주를 찾고 일체 되어 행하여라. <네가 있는 곳> 이 ‘네 육신을 중심한 주의 전’ 이다.

41. 저마다 <자기 위치>에서 ‘주의 말’ 을 듣고 행하여라. <자기 위치>가 ‘일하는 처소’ 다.

42. 항상 스스로 조심해라. 항상 자기 스스로 조심하면, 문제가 없다.

43. 주가 함께하니, 스스로 조심하며 문제없이 행하여라.

44. <부활의 때>에는 정말 하나 돼야 한다.

45. <성삼위>와 사랑으로 하나 되고, <주>와 마음도 행실도 하나 되고, <형제들>과 의논하고 하나 되어 화평으로 행하며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해야 된다.

46. <교회>도 차원 높게 부활되어 ‘성전 축복’ 을 받았으면, 그 어느 때보다 ‘살아 있는 부활의 삶’ 을 살면서 성삼위와 주와 형제들과 더욱 사랑과 화평으로 하나 되어 영광으로 행해야 된다.

47.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<한 가지>만 생각하고 행하지 말고, 그 일로 인해 ‘다른 문제’가 일어나지 않는지 봐야 된다.
48. <행하는 그 일>로 인해 ‘다른 일’ 까지 좋게 돼야 제대로 행하게 된다.
49. <한 가지 일>만 생각하고 행하면 <다른 것>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. 고로 <자기 생각>만 하지 말고, <행하는 목적>만 생각하지 말고, 그 일을 행함으로 <문제>가 생기지 않는지 보면서 온전하게 해야 된다.
50. <하나님>은 ‘알파와 오메가’ 요, ‘시작과 끝’ 으로서 전에도, 지금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.
51. 하나님은 <믿는 자들>도 ‘행위’ 대로 갚아 주시고, <안 믿는 자들>도 ‘행위’ 대로 갚아 주신다. 각각 ‘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았던 연고’ 이며, 혹은 ‘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지 않았던 연고’ 다.
52. 지금도 ‘행위대로 갚아 주는 심판’ 이 진행 중이다. 왜? <오리라 한 의인>을 미워하고 <이 시대의 죄와 고통을 대신한 자>를 붙잡아서 그가 당하는 고통을 즐거워한 연고다. 그를 대한 대로 ‘갑절로 갚아 줌’ 을 받게 된 것이다. <자기 위치>를 떠나 ‘권위를 업신여긴 연고’ 다. 하나님은 ‘세상 법’ 을 통해 심판하시니, 그 심판이 맹렬하다.

53. <주>는 ‘시대 죄’를 대속하러 들어갔으나, <그들>은 ‘자신의 죄값’을 치르러 들어갔다. <지난날 자신의 행위>가 ‘자신의 현실’을 만든 것이다.

54. 사람은 ‘자기 행위의 열매’를 먹는다.

55. 주 안에서 흠 없이 행하여, 매일 행하시는 심판을 면하여라. 들어가도 복, 나가도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라.